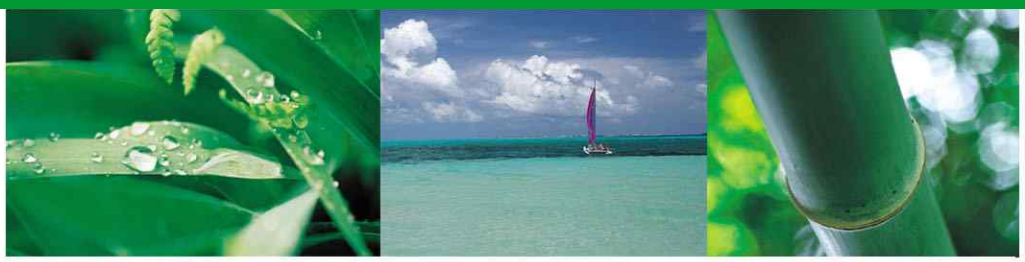
주간건설 Review

615호 2020.2.21(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 10기' 모집
- 현대건설, 'H 클린알파 2.0' 기술 개발
- 롯데건설, 롯데캐슬 현장에서 새해부터 자발적 봉사활동
- 금호산업, '어울림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

▣ 건설경제 일반동향

- 16.5조원 규모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지난해 건설신기술 신청 사상 최대
- 중투심 통과한 지자체 개발사업 1.5조원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추가 발표
- 조달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 10기' 모집



○ 포스코건설은 2020년 한해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할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Happybuilder) 10기'를 모집한다고 예고

○ 자세한 모집요강과 지원서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3일까지 이메일(happybuilder2019@gmail.com)로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모집인원은 30명으로 △K-POP 보컬·댄스 △전통공연 △태권도 △Youtube 촬영•편집 △MC(아나운서) △악기 △IT(3D프린터·드론) 등 7개 분야에서 재능과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

○ '해피빌더'는 2011년 포스코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창단한 대학생봉사단으로 '너의 끼로 세상을 바꿔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9년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왔음

◈ 현대건설, 'H 클린알파 2.0' 기술 개발

○ 2월20일 현대건설은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기술을 결합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털 솔루션 'H 클린알파 2.0'을 선보인다고 밝힘

○ 올해 분양하는 모든 현대건설 아파트에 적용할 예정인 'H 클린알파 2.0'은 초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곰팡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을 동시에 제거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기술을 결합한 'H 클린알파 2.0' 이미지

하는 기능을 갖춰 지난해 선보인 'H 클린현관·H 아이숲·유해물질 흡착벽지' 등을 제공하는 초미세먼지 토털 솔루션 'H 클린알파(Cleanα)'를 한층 강화한 기술임

○ 현대건설은 코로나19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모든 주거공간에는 청정라이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롯데건설, 롯데캐슬 현장에서 새해부터 자발적 봉사활동

○ 2월15일 롯데건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경자년에도 롯데캐슬 현장 2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힘



환경정화를 위해 쓰레기를 줍고 있는 주안 캐슬&더샵 봉사단

○ 지난 1월20일에는 과천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과천시 복지정책과의 추천을 받아 타일 교체공사, 페인트 도색 등 주거시설 개선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음

○ 또 1월30일에는 롯데캐슬 브랜드를 앞세운 컨소시엄 현장인 인천 주안 캐슬&더샵 현장에서 인근 주택가 인도, 차도와 석바위 공원 등을 돌며 지역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친 가운데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고 밝혔음

○ 롯데건설은 올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 금호산업, '어울림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

○ 금호산업이 최근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어울림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해 수익금을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에 전액 기부하였음

○ '어울림 플리마켓' 행사는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자 금호산업이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 이번 행사에서는 서재환 금호산업 사장을 비롯한 본사 및 현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간 소장품 기증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00여 점의 물품이 모였으며, 골프채, 고급 양주 등 고가의 물품에서부터 어린이 장난감, 텀블러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기증품

들이 접수되었음



'어울림 플리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한 금호산업 직원들

○ 금호산업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으로 경매 및 판매를 진행했고, 이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금호산업 본사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모든 임직원들이 '어울림 플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 금호산업은 첫 행사가 잘 끝난 것을 계기로 앞으로 꾸준히 플리마켓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음

◈ 16.5조원 규모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KDI에 일괄 예타를 의뢰함에 따라 KDI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연구용역 준비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주요내용>

❒ 현황

-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사업은 총 178건(23조원)으로 이 가운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사업은 총 112건, 추정사업비 16조 5347억원 규모에 이르며, 나머지 사업들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의 사업(66건)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를 수행하게 됨
- 지난해 정부가 예타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개편한 만큼 KDI의 예타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결과를 반영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이 확정될 전망

<KDI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분야별 예타 진행 현황>

사업분야	건수	총사업비 규모
국도 신설·확장사업	31	51,361억원
국도 시설개량 사업	37	41,933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사업	15	45,599억원
국지도 신설·확장 사업	13	13,572억원
국지도 개량사업	16	12,882억원
총계	112	165,347억원

- KDI의 예타를 받게 되는 5차 5개년 계획 초안 사업 112건 가운데 추정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상회하는 사업은 60건, 나머지 52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구성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도로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기계획으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지난 2016년 발표한 4차 계획(안)과 비교해 추진 검토 사업 건수는 2건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총사업비 규모는 약 4조원(21%) 가량 증가

❒ **향후 일정**

- 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모두 예타를 통과해야만 5차 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 가능
-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지역 숙원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가운데 최종 계획안은 KDI의 예타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 지난해 건설신기술 신청 사상 최대

○ 2월20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신청건수가 96건으로 연도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주요내용>

- 건설신기술 지은 특허 등에 비해 엄격한 심사절차 특성상 신기술 지정건수보다는 개발업계의 관심과 참여도를 가늠할 지표인 신청 건수가 신기술 시장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평가
- 통상적으로 신청건수보다 지정건수를 중시하지만 신기술의 경우 엄격한 지정 절차를 통과하는 신기술 비율이 특허 등에 비해 낮은 탓에 오히려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기술 숫자가 건설신기술의 쓰임새와 시장 수요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꼽히기 때문이라는 설명
- 건설신기술협회에 따르면 기술별 편차는 있지만 건설신기술 1건을 개발, 지정받기까지 평균 6억 2000만원을 투입해 평균 2.7년이 걸리고, 개발 이후에도 실제 적용할 현장을 섭외해 시공실적까지 쌓아야 지정이 가능
- 반면, 건설 관련 특허기술의 개발비는 2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그동안 신기술은 특허보다 월등한 개발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 일선 발주기관의 심사과정에서는 특허와 다를 게 없는 형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신기술 신청건수 증가는 의미 부여
- 한편, 그 동안 국토부는 신기술을 소신껏 적용한 공무원과 발주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 면책조항 등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명시하는 한편 신기술 확산을 위한 사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현황>

연도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수
1989~2008년	1,284
2009년	47
2010년	51
2011년	86
2012년	78
2013년	84
2014년	71
2015년	36
2016년	50
2017년	51
2018년	53
2019년	96
계	1,987

용협약자 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음

- 아울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국토진흥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건설신기술을 발주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박람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음

◈ 중투심 통과한 지자체 개발사업 1.5조원

○ 국비가 지원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추진 개발사업 14건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사업 추진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

<주요내용>

- 지난해 행안부의 중투심을 통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자체 추진 개발사업이 총 14건, 총사업비는 1조5419억원으로 집계
- 14건의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은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으로 2286억원 규모이며,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김해종합운동장 건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전주육상경기장 증축·야구장 건립 △전남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파주 월롱~광탄 도로 확·포장 등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사업들로 분류됨

<중앙투자심사 통과 500억원 이상 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청주시청사 건립	2286억원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2248억원
김해종합운동장 건설	1978억원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1424억원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134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184억원
전주육상경기장 증축·야구장 건립	1147억원
전남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89억원
파주 월롱~광탄 도로 확·포장	1064억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924억원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825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00억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642억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626억원

자료 : 건설경제신문(2020.2.17日字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추가 발표

○ 2월20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주요내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3.2 시행)

현 행	개 선	
	주택가격 구간	LTV
‣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 적용	[구간①] 9억원 이하분	‣LTV 50% 적용
	[구간②] 9억원 초과분	‣LTV 30% 적용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3.2 시행)

현 행	개 선
-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 3.2 시행)

현 행	개 선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

-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현행)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 (개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

-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함

- 이에 따라, 상기 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함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

- 또한,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전문가 및 주택업계 반응>

- 전문가들은 금번 대책에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우며,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규제는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만 도움에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
- 주택업계 역시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원활히 공급하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값 상승의 시작점인 서울, 그리고 강남권에 대한 공급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

◈ 조달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조달청은 2월18일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함

<주요내용>

❒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 혁신

-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도 폐지하고,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

  * 계약이행기간 산정, 공사비 책정, 납품지연에 대한 감점, 계약연장 제한조치 등

  **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공사실적평가 부담 경감, 온라인 평가 확대

❒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함
- 하도급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률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의 공공수주를 지원함

❒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 개선

-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함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 강화

- 국민 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대검·공정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함